

KG케미칼, 건설재료에 전력투구

친환경 소재로 방향 결정 ... 기존제품 리뉴얼에도 적극 나설 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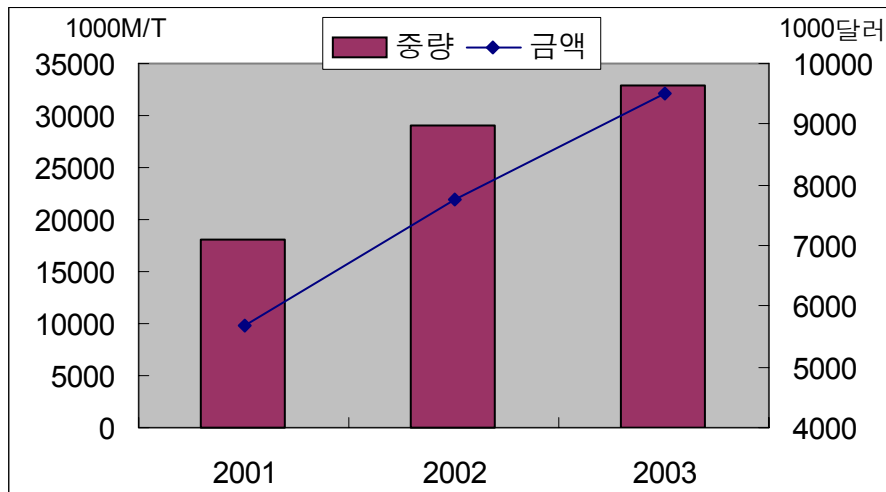
KG케미칼이 건설재료에 핵심역량 포커스를 맞추고 새로운 아이템 구상에 골몰하고 있다.

추진될 사업의 방향은 무독성 접착제, 페인트의 원료인 하소 카올린(Calcined Kaolin) 등 친환경 건축자재와 고부가가치 제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.

하소 카올린은 페인트 생산과정에 첨가되는 제품으로서 부전도성(불투명 내구성, 유동성, 세정 저항력) 등을 강화 시켜주는데 이러한 특징은 TiO₂ 투입량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어 생산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.

특히, 하소 카올린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개발·판매하면 900만달러 이상의 수입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.

하소 카올린 수입현황



KG케미칼은 이와 같은 사업전략에 따라 2004년 매출목표를 2003년 1400억에서 40% 이상 증가한 2004억원으로 높여 잡았고 건설화학사업부에서 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.

또 기존 건설화학사업부 주력 상품이던 콘크리트 혼화제의 품질향상과 콘크리트 발전에 발맞추어 새로운 콘크리트 혼화제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. <심주영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5/28>